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병원성 세균인 슈도모나스(녹농균)가 검출되는 등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우리아이 비눗방울 장난감에도 혹시 병원성 세균 득실 거릴까

소비자원, 일부 제품서 검출
안전기준 초과...주의해야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병원성 세균인 슈도모나스(녹농균)가 검출되는 등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장난감 전문점, 문구점 등에서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2종에 대해 위생성 및 병원성 세균 검사와 표시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의 비눗방울용액 중 3개에서 일반세균 1개에서 대장균군 2개에서 슈도모나스가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EU 장난감 안전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균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래 놀이터 비눗방울(거진상역) ▲무지개 비눗방울(월성산업사) ▲에디슨 왕눈이 비눗방울(신광사) 등이다. 이 가운데 무지개 비눗방울은 대장균군과 슈도모나스도 검출됐고 에디슨 왕눈이 비눗방울은 슈도모나스가 추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세균을 포함한 대장균군이나 슈도모나스가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은 제조과정상 살

제품명 (수입/판매/제조)	(단위: CFU/ml)		
	일반세균	대장균군	슈도모나스
모래놀이터 비눗방울(거진상역)	8,800	불검출	불검출
무지개 비눗방울(월성산업사)	81,000	42,000	검출
에디슨 왕눈이 비눗방울(신광사)	35,000	검출	검출
EU 장난감 미생물 안전기준	≤1000	≤10	불검출

균 등의 처리과정과 유통과정의 위생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슈도모나스는 병원성 세균으로 사소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축농증, 요도염, 전립선염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EU에서는 장난감에 사용된 수용성 물질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도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일반세균과 슈도모나스가 검출돼 잇따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미생물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눗방울 장난감은 어린이가 자칫 잘못하면 비눗용액을 삼킬 수 있으므로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최소사

용연령과 주의·경고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비눗방울 장난감 사고는 23건으로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20건(87.0%)이고, 비눗용액을 잘못 마신 사고가 13건(56.6%)으로 나타났다. 비눗방울 장난감의 안전표시상태 조사 결과, 최소사용연령은 크기·색깔 등으로 주위 글씨와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나 22개 중 8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2개 제품은 아예 연령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눗용액 삼킴 주의·경고 표시의 경우 22개 중 4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용성 물질 함유 장난감의 미생물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납세자에 부당한 ‘세법’ 아직도 많다

정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 불구
국민들은 과세당국 친화적 납세제도에 불만

납세자는 자신이 냈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국제 관련 법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활용할 생각조차 못한다. 세법 전문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복잡해 매번 개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다 양한 개선책 마련=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4대 방향 중 하나를 ‘세제 합리화’로 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무보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한다. 영세 납세자가 당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제정상이 무보수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한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그동안에는 납세자 본인이 화재 같은 재해나 도난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만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연장해줄기로 했다. 세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불합리한 사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체납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한은 30일이다. 또 정부는 현재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돼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세법, 여전히 과세당국 친화적’ 비판도=하지만 세법이 여전히 납세자보다 과세당국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사정상 기간 내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국제기본법은 납세 지연에 따른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납세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가산세를 감면할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행 법이 지연 기간에 부과하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100% 감면’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환급가산금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세분화 공개 의무화해야”

비싼 이용요금에다 계약해지 거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을 낚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세분화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행성을 유도하려면 그 공개 범위를 보다 확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지적
부가서비스 다양화 추세
개별 중요정보 제공필요

특히 산모 마사지, 임산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가 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의무 공개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지’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 “해외직구,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급증”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14일 당부했다. 그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명목명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14일 당부했다. 그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하루평균 279건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지난달 들어 28일까지 하루평균 419건으로 상승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는 하루평균 신청건수가 3584건까지 치솟았다. /연합뉴스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안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SINCE 1988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뽀칠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안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